

# BNK 경제인사이드

BNK 금융경영연구소

NO. 2015-07

(2015년 7월)

## 최근 기업금융 현황

강대일 책임연구원 (di0618@bnkfg.com)

김민준 책임연구원 (kmj9612@bnkfg.com)

기업의 예금은행 대출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순)는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 예금은행 대출 증가규모는 전년 상반기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크게 늘어났으나 대기업 대출이 위축되었다. 중소기업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지역의 기업대출은 금년 1~5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회사채 발행규모는 대기업의 저조한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2013년 4/4분기 이후 부진한 실적을 보였으나 2015년 2/4분기중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우량기업의 발행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규 대출금리 격차는 축소되었으나 우량등급과 비우량등급 간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 2012년 이후 기업자금 조달규모 감소 추세

기업의 예금은행 대출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모(순)는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금조달 수단별로 보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2012년 줄어들다가 2013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2013년 이후 급감하였다.

이와같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의 축소는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수요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유형자산 증가율은 2010~2011년중 8.4%에서 2013년 및 2014년중 각각 3.5% 및 2.5%로 낮아졌다.

기업대출<sup>1)</sup> 및 회사채<sup>2)</sup> 발행 추이



기업의 유형자산 증가율



주 : 1) 예금은행 대출, 증감액 기준  
 2) 비금융기업(ABS 제외), 증감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6)

2015년 상반기중 기업의 대출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31.3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0.7조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2013년 4/4분기 이후 저조한 실적을 보인 회사채 발행실적이 금년 2/4분기 들어 크게 늘어났으나 대출규모(순)가 지난해 상반기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금융 현황

(기간중 증감, 조원)

구 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대출 <sup>1)</sup>	10.6	12.0	14.0	-0.6	16.3	16.5	10.4	10.5	15.4	12.6 <sup>p)</sup>
회사채 <sup>2)</sup>	6.2	5.5	5.4	1.1	-1.6	-0.5	0.5	0.7	-1.3	4.6
합 계	16.8	17.5	19.4	0.5	14.7	16.0	10.9	11.2	14.1	17.2

주 : 1) 예금은행 기준

2) ABS 제외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 중소기업 대출 큰 폭으로 증가

2015년 들어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금년 1~5월중 예금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26.9조원 증가하여 지난해 상반기(19.4조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비해 금년 1~5월중 대기업 대출은 1.8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는 예대금리차 축소에 대응하여 대기업보다 금리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2014년 6월부터 정부에서 도입한 기술신용대출<sup>1)</sup>이 크게 늘어난데 주로 기인한다.

1)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서 기업의 기술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출제도

###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현황

(기간중 증감, 조원)

구 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4/4	1/4	4~5월
합 계	10.6	12.0	14.0	-0.6	16.3	16.5	10.4	10.5	15.4	9.7
대기업	1.1	5.8	5.3	-3.6	5.6	7.8	1.2	3.7	0.3	-2.1
중소기업	9.5	6.2	8.7	3.0	10.7	8.7	9.2	6.8	15.1	11.8

자료 : 한국은행

## 동남권 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도 확대

중소기업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기업에 대한 대출도 금년 1~5월중 5.4조원 증가하여 지난해 상반기(4.6조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 예금은행의 동남권 기업대출

(기간중 증감, 조원)

구 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4/4	1/4	4~5월
합 계	3.6	2.0	1.9	0.1	2.4	2.2	2.2	0.9	3.6	1.8
중소기업	2.7	2.0	1.9	0.9	1.5	1.8	2.2	1.2	2.6	1.8

자료 : 한국은행

2015년 1/4분기중 예금은행의 동남권 기업에 대한 대출을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 대한 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비스업에 대한 대출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한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금속제품업에 대한 대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조선기자재를 중심으로 기타 운송장비업에 대한 대출은 2013년 2/4분기 이후 매우 저조하였으나 금년 1/4분기중에는 회복된 모습이다. 그밖에 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분기별로 큰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 1/4분기중 증가세는 예년의 수준을 다소 밑돌고 있다.

예금은행의 동남권 산업별 대출

(기간중 증감, 십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4/4	1/4
<b>제조업</b>	2,184.7	767.7	712.5	-407.0	1,875.6	1,150.5	1,158.8	55.0	1,712.2
1차금속	182.3	85.9	52.5	-62.2	320.3	25.0	71.6	105.8	128.5
금속가공 제품제조	260.7	36.2	69.7	-28.6	283.8	333.5	211.8	31.3	283.8
기타 기계 및 장비	183.9	100.3	262.9	62.8	353.9	175.4	417.8	3.5	27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215.9	184.9	194.2	75.7	258.2	158.3	135.4	58.0	170.7
기타 운송장비	601.4	10.2	-253.1	-471.0	8.4	190.5	-117.2	-374.9	159.7
기타 제조업	740.5	350.2	386.3	16.3	651.0	267.8	439.4	231.3	698.3
<b>서비스업</b>	923.4	1,286.8	636.0	791.8	52.3	1,057.0	780.9	1,153.1	1,505.6
개인서비스 <sup>1)</sup>	165.8	132.1	47.9	122.5	57.7	136.0	133.0	204.6	250.2
생산자서비스 <sup>2)</sup>	127.3	636.9	367.1	402.3	-339.1	568.0	477.8	646.1	993.8
사회서비스 <sup>3)</sup>	146.5	192.1	120.2	115.0	57.1	163.4	50.4	94.3	28.9
유통서비스 <sup>4)</sup>	483.8	325.7	100.8	152.0	276.6	189.6	119.7	208.1	232.7
<b>건설업</b>	428.7	-68.1	273.7	-209.0	456.5	-83.4	136.3	-243.0	345.9
<b>기 타</b>	125.5	157.3	92.6	51.9	58.4	77.6	37.7	15.5	25.0
<b>합 계</b>	3,662.3	2,143.7	1,714.8	227.7	2,442.8	2,201.7	2,113.7	980.6	3,588.7

주 : 1) 숙박, 음식, 교육, 오락문화, 기타개인서비스

2)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 통신

3) 보건,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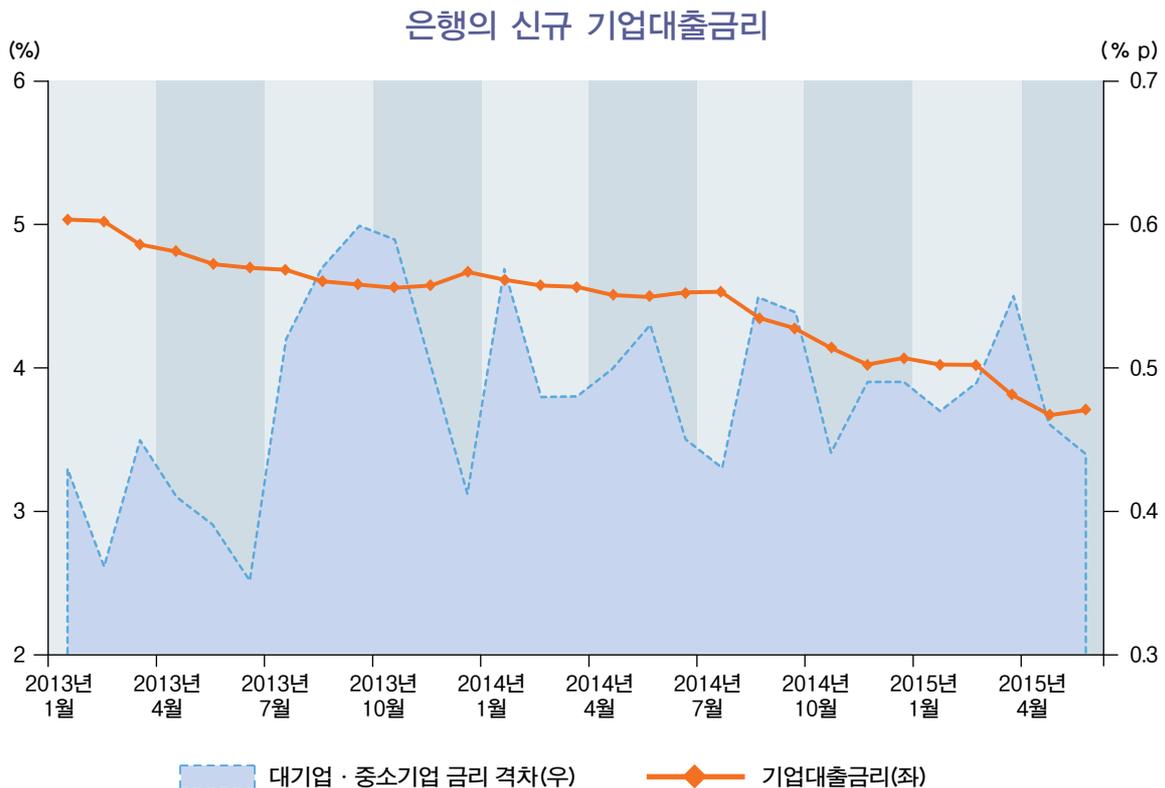
4) 운수, 도소매업

자료 : 한국은행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금리격차 축소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세 차례에 걸쳐 0.75% 포인트(2.50% → 1.75%) 인하되었다. 은행의 대출금리도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은행의 신규 기업대출금리는 2014년 7월 4.54%에서 2015년 5월 3.71%로 0.83%포인트 인하되었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리격차는 2014년부터 금년 1/4분기중 평균 0.50% 포인트에서 움직였으나 금년 4~5월에는 0.45%포인트로 축소되었다. 이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자료 : 한국은행

## 비우량등급 발행비중 축소

기업의 회사채 발행규모는 2013년 4/4분기 이후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015년 2/4분기중 크게 늘어났다. 이는 대기업의 무보증 채권발행<sup>2)</sup>이 증가한데 주로 기인한다.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 조달금리가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1%대의 발행이 가능해지자 발행을 늦추던 기업들이 연이어 회사채를 발행하였다. 예를들어 LG그룹의 경우 엘지 디스플레이 공장의 설비투자 및 엘지하우시스의 사이언스파크 신축자금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였고 호텔신라는 서울시내 면세점 유치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였다.

### 회사채<sup>1)</sup> 순발행액

(기간중 증감, 조원, %)

2013				2014				2015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6.2	5.5	5.4	1.1	-1.6	-0.5	0.5	0.7	-1.3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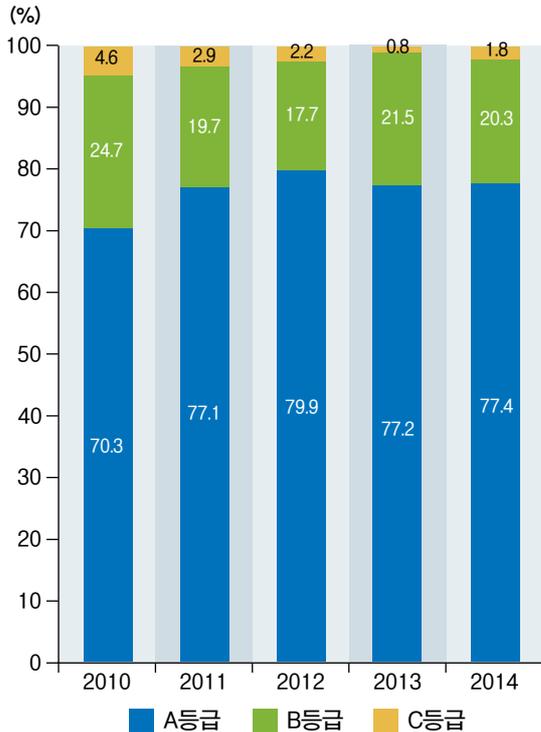
주 : 1) 예탁결제원 보관증서 기준(공모+사모), 금융채 및 ABS 제외

자료 :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KOFIA BIS)

2) LG그룹 7,800억원, 현대자동차그룹 6,700억원(현대제철 4,700억 차환용도), 호텔신라 2,500억원

기업의 신용등급별 채권 발행회사수는 A등급 이상의 발행비중이 2010년 70.3%에서 2012년 이후 77%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투기등급(BB이하)의 비중은 축소되었다. 발행시장의 신용등급별 수요예측에서도 2014년 AA등급, A등급 이상의 참여율<sup>3)</sup>이 212.8%, 236.5%로 높은 반면 BBB등급 이하의 참여율은 40.8%로 저조하였다. 발행액 기준으로 보면 A등급 이상의 발행비중이 2013년 75.6%, 2014년 77.3%에 달하고 있다. 이와같이 회사채 발행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우량기업의 발행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위험회피 성향의 확대로 회사채 시장의 수요가 저위험의 안정적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용등급별 채권 발행회사 수 비중



자료 :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신용등급별 회사채 발행액

(십억원, %)

구분	2013년		2014년	
	발행액	비중	발행액	비중
AAA	16,214	24.2	12,477	21.5
AA	25,801	38.5	25,325	43.7
A	8,639	12.9	7,014	12.1
BBB	2,014	3.0	1,478	2.6
BB이하	678	1.0	154	0.3
기타 <sup>1)</sup>	13,395	20.0	11,348	19.6
총 계	66,741	100.0	57,796	100.0

주 : 1) 미등급평정 회사채

자료 :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

3) 참여율 = 참여금액 / 발행금액, 금융투자협회(발행예정금액 기준) 신용등급별 수요예측결과(2014)

### 신용등급별 업체수

(개,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AAA	127	13.6	144	14.8	154	15.6	168	16.0	178	16.0	185	16.1
AA	167	17.9	248	25.5	280	28.3	323	30.8	337	30.3	378	32.9
A	271	29.0	291	30.0	328	33.2	347	33.1	344	30.9	327	28.4
BBB	162	17.3	124	12.8	118	11.9	127	12.1	142	12.7	125	10.8
BB	67	7.1	42	4.3	40	4.0	37	3.5	78	7.0	74	6.4
B	102	10.9	74	7.6	38	3.8	22	2.1	21	1.8	36	3.1
CCC	31	3.3	29	2.9	23	2.3	16	1.5	6	0.5	18	1.5
CC	0	0.0	1	0.1	1	0.1	0	0.0	0	0.0	3	0.2
C	5	0.5	16	1.6	5	0.5	8	0.7	4	0.3	2	0.1
투자 등급	727	78.0	807	83.2	880	89.1	965	92.0	1,001	90.1	1,015	88.4
투기 등급	205	22.0	162	16.7	107	10.8	83	7.9	109	9.8	133	11.5
전체 등급	932	100.0	969	100.0	987	100.0	1,048	100.0	1,110	100.0	1,148	100.0

자료 :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KOFIA BIS)

## 중소기업 회사채발행 매우 저조

회사채 발행액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2013년 이후 중소기업의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2010~2012년 중 연간 20~40건, 4천억원~1조원의 발행 실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건수는 연간 1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발행금액도 7백억원 미만이다.

자금용도별로 보면 2012년 이후 운영자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차환자금융은 줄어들고 있다. 한편 시설자금융 발행규모는 2010년 이후 대체로 5%를 하회하고 있는데 2014년 이후 비중이 더욱 축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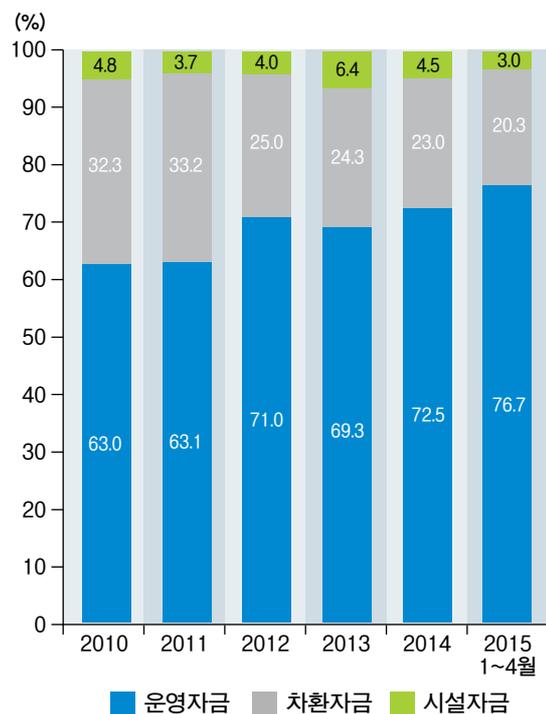
발행회사 규모별 발행현황<sup>1)</sup>

(건, 십억원)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1,649	101,014	38	782
2011	1,746	116,950	35	944
2012	1,448	109,856	23	390
2013	1,490	95,728	8	69
2014	1,569	97,898	3	38
2015 1~4월	545	32,030	1	50

주 : 1)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자금용도별 회사채 발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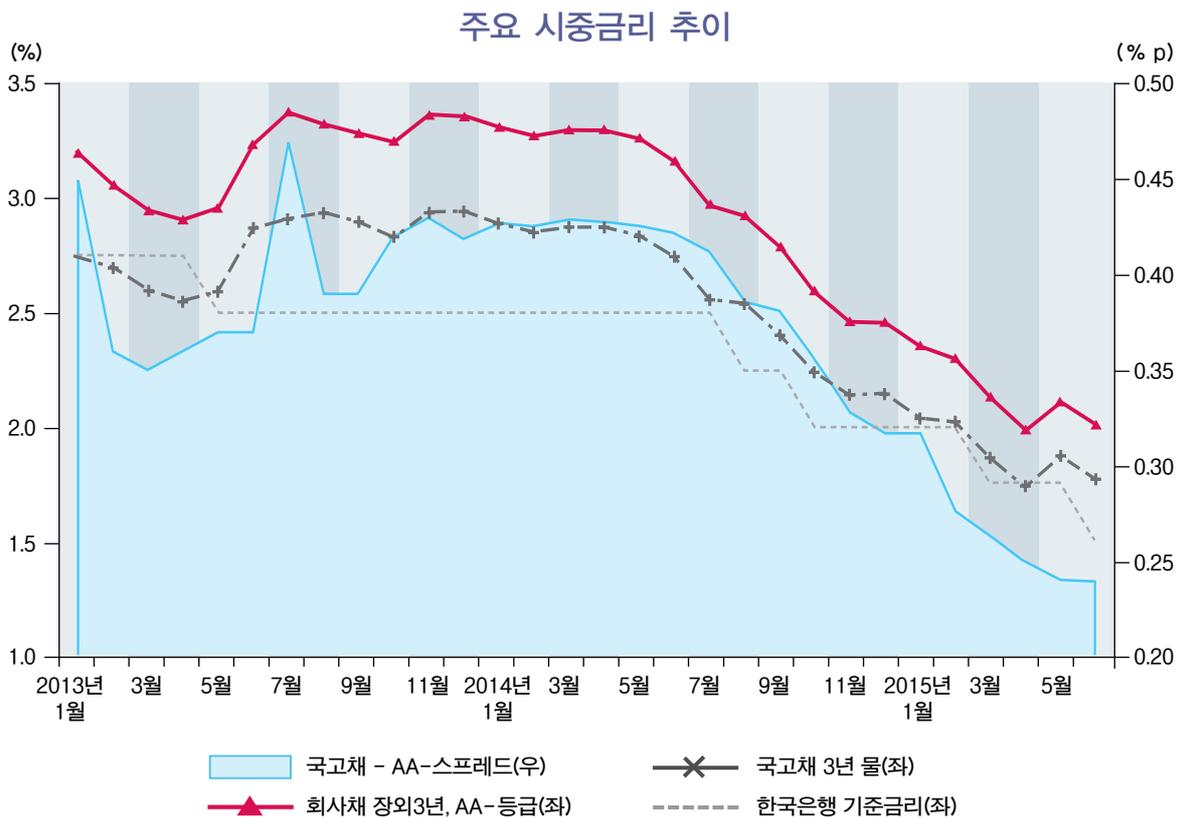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 우량등급과 비우량등급 간 금리격차 확대

회사채(AA-등급, 3년물)의 유통수익률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대체로 3%초반에서 움직이다가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15년 6월 2.01%까지 하락하였다. 국고채 3년물과 금리격차(스프레드)는 2014년 상반기 0.41~0.43%포인트에서 2015년 6월 0.24%포인트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비우량등급인 회사채(BBB-등급, 3년물)의 유통수익률은 우량등급 회사채 대비 하락폭이 작아 AA-등급과 BBB-등급의 스프레드는 2014년 상반기중 대체로 5.70%포인트에서 2015년 6월 5.91%포인트로 오히려 확대되었다.



자료 : 한국은행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만나  
BNK금융그룹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금융그룹  
가기다 은행부터 증권, 캐피탈, 자산운용까지  
지역에서 시작해 세계로 뻗어가는 금융  
기대하세요, BNK가 만들어갈 앞으로의 금융

## BNK금융그룹, 금융의 내일을 만듭니다

Beyond No.1 in Korea  
BNK 금융그룹

# BNK

 BNK자산운용이 BNK금융그룹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큰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BNK를 기대해주세요!

BNK 부산은행 | BNK 경남은행 | BNK 투자증권 | BNK 캐피탈 | BNK 저축은행 | BNK 자산운용 | BNK 신용정보 | BNK 시스템 Beyond No.1 in Korea BNK 금융그룹

### BNK BNK금융지주

발행인 : 성세환  
편집인 : 조성제  
발행처 :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 BNK금융경영연구소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이메일 : research@bnkfg.com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